

01 한영투자포럼

씨트리(대표 김완주), 넥스젠(대표 이선교), 리젠바이오텍(대표 배은희), 이코바이오(대표 김광운) 등 4개사가 11월 8일부터 11월 16일까지의 일정으로 독일의 레겐스부르크, 뮌헨, 영국의 런던, 캠브리지, 길포트, 옥스퍼드로 투자유치 및 파트너링 행사를 다녀왔다. 본 행사는 산업자원부, 영국대사관, 독일 바이에른 주정부, 레겐스부르크 대학의 후원하에 진행되었다.

11월 10일부터 15일까지 독일과 영국의 지역별로 진행된 투자유치 및 파트너링 행사는 타이탄한 일정과 개별미팅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며 영국과 독일의 상대기업들과 조인트벤처설립, 공동연구, 현지 에이전트관계수립, 기술이전 등 여러분야에 걸친 협력방안에 관하여 진지한 상담을 진행하였다.

특히 영국의 경우 해외기업 투자 및 파트너십에 대한 중앙 및 주정부의 체계화된 지원서비스가 아주 인상적이었다. 이번행사를



진행하면서 국내 바이오벤처기업들이 미국시장 뿐만이 아니라 EU로 통합된 유럽시장에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공략에 나선다면 분명히 성공할수 있다는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 큰 수확이었다.

02 BT분야 전문인력 양성사업

IT혁명이후 세계경제를 선도할 대표적인 차세대 성장주도산업으로 급속히 부상하고 있는 BT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00년부터 산자부 주도로 범 조성, 발전전략 수립, 정부지원 강화 등을 추진함에 따라 시장규모 등 외형적 지표는 빠르게 성장하고 있으나 기술개발이나 인프라조성 수준 등에 비해 인력양성 수준은 매우 미진하여 전문 인력의 부족으로 기술경쟁력이 취약하고 심각한 인력난이 예상되어, 결국 BT산업 발전의 걸림돌로 작용할 우려가 있었다.

BT산업 경쟁력 강화의 핵심요체는 우수한 인적자원의 확보와 활용에 달려있다는 인식이 확산되어, 산업자원부의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으로 연구분석장비·시험생산공장 등이 구축되어 있는 8개 바이오벤처지원센터(BVC)를 참여기관으로 하여 '02년 하반기부터 5년간에 걸쳐 진행될 [바이오전문생산 기능인력양성 사업]을 한국바이오벤처협회가 신규로 추진함에 따라 실용화·산업화 진전에 따라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전문생산 기능인력을 기업의 수요에 따라 맞춤형으로 양성함으로써 국내 BT산업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사업개요

- 사업기간_ '02~'07(5년간)
- 총사업비_ 83억원(정부지원:32억원(산기반), '02년 4억원)
- 8개 바이오벤처지원센터:강원(춘천시), 대전(생명공학연구원), 전북(생물벤처기업지원센터), 전남(동신대), 경남(바이오21센터), 충북(영동대), 경북(상주대), 제주(제주대)
- 정부지원_ 센터당 5년간 장비구축비 50억원 지원 (센터당 매년평균 10억원)
- 사업주관기관
- 한국바이오벤처협회
- 사업내용_ 멸균·발효·배양·분리·정제·농축·건조·제품화·공정자동화 등 제품생산단계에서 필요한 전문기능인력 양성(위탁교육 및 실습실습 교육 중심)
- ◆ 양성 목표
- 생산현장 전문인력: 약 1,200명
- 대학예비산업화 인력: 약 600명
- 산·학·연·관 인력양성 네트워크 구축
- 채용 박람회 개최
- 생산기기 관련 이론 및 실습 교재 개발
- 센터별 특성화 인력양성센터로 전환
- 교육 대상자 : 기업체 종사자, 대학연계 예비 산업화 인력 등
- 특히, 바이오벤처지원센터별 특성을 고려한 교육과정 운영방안을 구체화

03 Bio CEO & Invesator Forum 2002

한국바이오벤처협회(회장 김완주)는 12월 6일 7일 양일간 대웅경영개발원에서 Bio CEO Club 여섯번째 모임 겸 Bio CEO & Investor Forum 2002를 개최했는데 바이오벤처기업 CEO, 임원 및 바이오 투자심사역 50여명이 참가하였다.

"Bio 꿈★은 이루어진다"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행사에서는 바이오벤처기업 경영에 있어서의 이슈들(렉스진바이오텍 권석형 대표), 바이오 투자현황 및 전망(한미열린기술투자 배신규 파트너), 바이오벤처 투자는 어떤 곳에 해야 하는가?(싸이제닉 이희설 대표) 바이오기업의 벤처캐피탈 투자유치전략(우리기술 투자 조영국 팀장) 등의 주제발표와 유럽시장 진출을 위한 의료용구/체외진단의료용구의 인증 시스템 설명회 등 다양한 행사



가 전개되었다.

Bio CEO club은 바이오벤처기업의 상호교류 확대와 인적 네트워크 확대를 목적으로 만들어졌으며, 식약청, 영국대사관 등과 함께 만남을 주선하여 많은 바이오벤처기업들이 참가해왔다.

04 2002 Bio산업 일본투자유치 설명회 및 상담회

협회는 12월 17일부터 19일까지 3일간의 일정으로 일본 동경 대학교에서 2002 Bio 산업 일본투자유치 설명회 및 상담회를 개최한다. 바이오벤처기업들에게 일본의 생명공학 관련 대기업과 바이오벤처기업 및 벤처캐피탈 등으로부터의 투자유치 기회를 제공하고자 산업자원부의 후원으로 진행하게 된다.

국내 참여업체들의 개별적인 일본 현지 투자자 섭외 및 정보 수집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사전 IR자료의 배포와 투자오퍼를 통해 실제 투자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준비되었다.

이번 투자유치설명회는 일본바이오벤처협회를 통해서 일본 내 네트워크 확보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일본 자본 및 기술의 국내 유치 뿐만 아니라 마케팅 협력을 통한 수출 거점 확보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사업개요

- 사업명_ 2002 Bio산업 일본투자유치 설명회 및 상담회
- 기 간_ 2002. 12. 17 (화) ~ 12. 19 (목)
- 장소_ 일본 동경 (동경대학교)
- 주관_ 한국바이오벤처협회
- 협력기관_ 일본바이오벤처추진협회(JBDA)
- 후원_ 산업자원부
- 참가대상_ 일본자본의 투자유치를 희망하는 국내바이오벤처기업
국제적인 경쟁력을 갖춘 국내바이오벤처기업
- 참가업체_
 - 기진씨이언스, 넥스젠, 마크로젠, 바이오니아, 바이오알앤즈, 크리스탈지노믹스, 쉐바이오텍, 이즈텍, 툴젠, 프로테오젠
- 사업내용
 - 일본, 한국 바이오벤처 산업 현황 설명회
 - IR (Investor Relationship)
 - 파트너링(지분제휴나 투자유치 및 기술협력)
 - 양국 바이오벤처협회의 업무제휴 조인식
 - 공식 만찬 1회
 - 일본 현지 바이오 관련 연구소 및 Leading 바이오벤처기업체 방문

05 한국바이오벤처산업 총람 발간

협회는 바이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바이오벤처에 대한 내용을 한눈에 살펴 볼 수 있는 책자의 필요성을 느껴 본 '총람'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협회는 앞으로도 바이오벤처의 활성화를 위해 꼭 필요한 일들을 하나둘씩 진행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성원을 부탁드립니다.